

한국 재래종 메밀과 캐나다 품종과의 교잡 후대에서 우량계통 선발

박철호¹⁾, 김연복¹⁾, 윤경민¹⁾, 김남수¹⁾, 우선희²⁾, 장광진³⁾, 이기철⁴⁾, 신영범¹⁾

¹⁾강원대학교 식물응용과학부, ²⁾일본 국립유전연구소, ³⁾한국농업전문학교

⁴⁾춘천교육대학교

Superior Breeding Lines from Hybrid Progeny of Crosses between Korean Buckwheat Landraces and Canadian Buckwheat Cultivars

Park Cheol Ho¹⁾, Yeon Bok Kim¹⁾, Kyoung Min Yoon¹⁾, Nam Soo Kim¹⁾, Sun Hee Woo²⁾, Kwang Jin Chang³⁾, Ki Cheol Lee⁴⁾, Young Bum Shin¹⁾

¹⁾Kangwon National University, ²⁾National Institute of Genetics, Japan,

³⁾Korea National Agriculture College, ⁴⁾Chunch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붕괴되어 가는 국내의 메밀생산기반을 회복하고 건강식품으로서의 메밀의 이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신품종의 육성을 위하여 한국의 일부 재래종 메밀과 캐나다의 주요 메밀품종을 교잡하여 얻은 후대 또는 방입수분 후대로부터 유망한 계통을 선발하여 종자 및 형태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선발된 계통은 봉평, 영월, 청송, 군위 등 4종의 재래종과 Mancan, koto, Koban 등 3종의 캐나다 품종 사이에서 교잡된 후대(F2 및 F3)에서 립중을 기준으로 선발된 것으로서 이들 F4 계통 중 계통번호 C105가 엽수, 가지수, 생체중이 가장 높았으며 C101과 C107이 백립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립폭은 C101, 립장은 C102가 가장 길었다.

방입수분시킨 F2로부터 선발된 F3계통 중에서는 OP507이 엽수와 생체중이 가장 높았고 가지수도 많았다. 종자는 OP502, OP507, OP510 등이 백립중이 4g 이상(4.0-4.2g) 되는 우량 계통이었다.